

수장 한명 바뀌자... 확 달라진 보훈처

5월단체 “일방 통보 보훈정책, 협의·소통으로 변화”

현안 무엇인지 먼저 물어오고 예산 증액도 적극적

이념 편향 논란 ‘나라사랑 교육’ 전면 개편 추진

“보훈정책이 통보에서 협의와 소통으로 바뀌었다. 보훈처가 먼저 ‘5·18단체의 현안은 무엇이고 저희가 도울 부분은 무엇인가’라고 물어온다. 천지가 개벽한 심정이다.”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취임 이후 보훈처가 확 달라졌다. 보훈정책 수립과 시행에 있어 광주·전남 지역민을 외면하고 일방 통행을 고집했던 박승춘 전 보훈처장 체제의 보훈처와는 180도 달라졌다. ‘변화가 피부로 느껴질 정도’라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흘러 나온다.

5·18을 바라보는 보훈처의 변화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신임 피 보훈처장의 진심과 역할도 가볍지 않다는 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등 5·18

3단체 측 설명이다.

보훈처의 변화는 곳곳에서 감지된다. 당장 지난 14년간 동결됐던 5·18기념사업 예산도 인상 조치가 보인다. 5·18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가 “지난 2003년 연 2억3000만원의 기념사업 예산이 2016년까지 이어지고 있다. 최소한 200%는 인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요청하자, 보훈처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담긴 공문을 지난 달 29일 보내왔다는 게 5월단체 측 설명이다.

김후식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회장은 “연초면 서울시 보훈정책 설명회를 한다. 보수정권 9년 동안 정책 설명회 내용이 우리(5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틀리지만

세워놔서 정말 가기 싫었다”면서 “보훈처가 수장이 바뀌고 본연의 모습을 되찾은 것을 보니 벌써 내년 정책설명회가 기다려진다”고 전했다.

지난 18일 5·18기념식 뒤 광주 한 식당에서 진행된 대통령과의 오찬에 참석했던 5·18단체 관계자는 피 보훈처장에 대한 첫 인상을 이렇게 전했다. “오찬에서 보훈처장이 내 열자리에 앉았다. ‘앞으로 자주 소통하겠다. 5·18단체 마음 아프게 하지 않겠다.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의견 주시라’는 말을 수차례 했는데 진심이 느껴졌다. 기념식 후 보훈처 직원들과 일을 하다 보면 그게 빈말이 아니라는 게 실감난다”

보훈처 산하 광주지방보훈청에서도 변화는 느껴진다. 광주지방보훈청의 경우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이전까지는 지역 정서와 배치되는 기념식, 보훈정책을 수행하느라 적잖은 부담을 느껴왔으나, 새정부 출범 후 새로운 보훈처장을 맞으면서 좀처럼든 어깨를 펴는 모습이다.

광주보훈청 관계자는 “5·18기념식 준비 과정에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는데, 국민이 감동하는 모습을 보고 이전에 없던 보람을 느꼈다는 직원들이 많았다”면서 “신임 처장이 ‘따뜻한 보훈정책’이라는 큰 방향을 제시하고 보훈처 본연의 임무를 강조하면서 일하기가 훨씬 수월해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피 보훈처장 취임 후 첫 호국보훈의 달(6월)을 맞는 보훈처는 ‘따뜻한 보훈’에 초점을 맞추고 고위공직자, 공공기관 관계자가 직접 유공자를 찾아가거나 초청해 위문하는 행사를 활발하게 열기로 했다.

피 보훈처장은 이념편향 논란을 부른 ‘나라사랑 교육’을 전면 개편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나라사랑 교육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안보 교육을 하는 것인데, 전임 박 보훈처장 재임 당시 ‘보수이념에 치우쳤다’, ‘국가 안보를 일방적으로 주입한다’는 비판이 나왔던 사업이었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영산강 죽산보 수문 오늘 개방

하류 지역 안전 주의해야

영산강 죽산보가 1일 오후 개방된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1일 오후 2시부터 영산강 죽산보 수문을 개방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농업용수 공급 장애와 지하수 수위 저하 등에 따른 농민피해를 우려해 3.5m인 현재 관리수위에서 1m 가량을 점진적으로 낮출 계획이다.

죽산보 수문 개방은 지난달 22일 정부가 발표한 ‘4대강 6개 보 상시개방’ 방침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녹조가 심하고 수자원 이용에 영향이 없는 보를 개방하기로 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수자원공사 등 관계

기관과 합동 현장조사로 이번 보 개방 효과를 분석하고 평가할 방침이다.

전남도, 광주시, 영산강홍수통제소,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운영해 수문 개방 효과를 집중 관찰한다. 죽산보 개방과 더불어 비점오염원 배출 사업장 단속을 병행해 영산강 녹조 요인을 차단하고 수질개선 효과도 높이기로 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죽산보 개방으로 영산강 수위가 일시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며 “하류 지역 시설물 피해나 낚시객 안전사고가 우려되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단원고 교사 머물던 5층 수색 본격화

세월호 1차 수색 이달 초 마무리

7~8월 화물칸 정리 작업 착수

단원고 교사 숙소가 있던 세월호 5층 수색작업이 본격화됐다.

세월호 현장수습본부는 지난 31일 세월호 5층 우현(상부) 중앙 구역을 절단하고 천공(구멍 뚫기) 작업을 한다고 밝혔다. 단원고 교사 숙소가 있던 5층 중앙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다.

고 고창서 교사와 미수습자 양승진 교사는 참사 당시 숙소에서 나와 단원고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챙겨주고 “빨리 나가라”고 외치던 모습이 목격됐다. 고창서 교사의 유해는 지난 5일 진도 침몰 해역 수중수색에서 발견됐다.

세월호 5층은 선수 조타실, 선미 전실은 수색이 완료됐다. 아직 5층 중앙 구역은 수색이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선체 수색은 4층은 화장실 등 두 곳을 제외하고 객실은 모두 1차 수색이 완료됐다. 3층은 중앙 로비 구역을 제외하고 절반가량 수색을 마쳤다.

현장수습본부는 미수습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3~5층 지장물과 진흙

등을 수거하는 1차 수색을 이달 초 마무리할 계획이다. 1차 수색이 마무리되면 벽면 등에 달라붙은 진흙을 때 수거하고 유해 유무를 확인하는 정밀수색을 한다. 이달 말까지 정밀수색을 마치면 7~8월 화물칸 정리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5년 5월 14일부터 운영해온 세월호 배·보상 지원단과 인양추진단을 1일부터 ‘세월호 후속대책 추진단’으로 통합 개편한다고 이날 밝혔다. 그동안 세월호 배·보상 지원단은 ▲보상총괄과(5명) ▲보상운영과(6명) ▲법무지원과(3명)로 운영됐다. 또, 세월호 인양추진단은 ▲기획총괄과(5명) ▲인양추진과(8명) ▲대외협력팀(4명)으로 구성됐다.

해수부는 두 조직을 하나로 통합하고 ▲기획총괄과(5명) ▲선체수습과(7명) ▲대외협력과(6명) ▲배·보상지원과(6명)를 뒀다. 인력은 단장과 부단장을 포함해 26명으로, 이전 33명에 비해 줄었다. 이는 세월호 피해자들에 대한 배·보상금 신청 접수와 지급 결정이 거의 끝났고, 미수습자 가족 일부에 대해서만 남아있기 때문이다.

/김현영기자 young@연합뉴스

“올해 5·18 행사 성공적... 위상 재정립한 해로 기억될 것”

행사위, 37주년 마무리 회견

5·18민중항쟁 37주년 기념행사위원회(5·18행사위)는 지난 31일 “옛 전남도청 복원, 5·18진실규명, 5월 정신을 헌법으로 계승하겠다”고 다짐했다.

5·18행사위는 이날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올해 기념행사를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5·18행사위는 기자회견에서 “촛불항쟁과 권교체라는 역사적 전환기에 맞이했던 올해 5·18은 많은 시민들의 기대와 관심속에 성공적으로 치러졌다”면서 “항쟁 37주년인 올해는 5·18 위상을 재정립한 해로 기억될 것”이라고 밝혔다.

단체는 “37주년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5·18 실제적 진상규명과 헌법 정신 계승을 다짐한 것은 5·18의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기념행사는 촛불 항쟁으로 부활한 오월의 열망을 담고자 노력했다”며 “추모제를 시작으로 민주대행진, 전야제, 부활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행사가 뜻깊게 진행됐다”고 평가했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제 37주년 5·18민중항쟁 기념행사를 마무리한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들이 지난 31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옛 전남도청 복원과 5·18 진실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담양서 발견된 실탄

특전사 복무 당시 유출

50대 검거 조사

지난 29일 담양군 담양읍의 한 건물 옥상에서 발견된 실탄은 육군 특전사 대원이었던 50대 남성이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담양경찰에 따르면 윤모(51)씨는 1990년대 군복무 당시 실탄 등 군용물을

절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2001년 1월 담양 주둔 11공수여단에서 군복무를 마치고 제대하기 전까지 실탄 173발, 연습용 수류탄 1개와 뇌관, 부비트랩, 연습용 폭음탄 9발 등을 빼돌렸다. 실탄 등이 발견된 곳은 목욕탕과 여관

으로 쓰이던 곳이었으며 윤씨는 이곳에서 장기투숙하며 지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윤씨가 군복무 당시 실탄 등을 유출했다고 인정했으며 헌병대에서 정확한 유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담양=정재근기자 jig@kwangju.co.kr

출소 3일만에...상인 협박 공짜술 마신 조폭 또 쇠고랑



○...상승공갈죄로 3년간 수감됐던 50대 조폭력배가 만기출소

3일 만에 상인을 협박해 공짜 술을 마셨다가 또다시 쇠고랑 신세. ○...지난 31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박모(52)씨는 지난 13일 오후 8시 광주시 서구 한 노래방을 찾아가 “내가 국제PI과 조직원인데 술 좀 내와라”고 소리 친 후 공짜술을 마시는 등 한 흡소에

서만 총 3차례에 걸쳐 85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공짜로 먹었다는 것.

○...박씨는 지난 16일에도 새벽 4시에 같은 노래방을 찾아가다가 “영양이 끝났으니 가달라”는 업주 이모(아·54)씨를 주먹으로 때렸던 것으로 조사됐는데, 경찰은 ‘서민 상대 갈취사범 특별 단속’ 과정에서 첩보를 입수하고 피해자를 설득해 박씨를 체포한 뒤 구속.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 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중심상권 일반상업지역 위치좋은 상무대로변 지상1층건물 대지 1342㎡ 건물 413,49㎡ 매매 49억
- ★ [건물] 광주 서구 동천동 동림2지구내 중심상권 아파트 상가 밀집지역 하남대로변 위치좋은 지하1층~지상7층 대지 867,90㎡ 건물 4124,36㎡ 매매 65억 (보5억 월수익 3천9백)
- ★ [건물] 광주 동구 지산동 중심상권 상가 밀집지역 위치좋은 지하1층~지상5층 대지 198㎡ 건물 729㎡ 매매 25억 (보5억6천500만)
- ★ [건물] 북구 신용동 첨단2지구 아파트밀집지역 메인상권 4층건물 대지 780㎡ 건물 1,830㎡ 매매 48억 (보5억3천 월2천2백 포함)
- ★ [고시원] 광주 동구 서석동 객실 36개 5층건물 1층커피 토지 423㎡ 건물 845,23㎡ 매매 18억 (대출7억 월수익1천3백)
- ★ [토지] 전남 창평면 삼천리 계획관리구역 대지 3,041㎡ 전원주택 (단지조성가능) 적합

사우나

- ★ [건물] 광주 광산구 월곡동 스포츠타운 사우나 위치좋은 건물 5,349,88㎡ 매매 85억 (상당후결정)
- ★ [건물] 북구 두암동 6층 지1~상5층 건물 위치최상 병원가능 대지 334,40㎡ 건물 990,88㎡ 매매 10억 (보1억 6백 월4천3백포함)
- ★ [건물] 광주 동구 게임동 사우나 위치좋은 지1~4층 대지 364,22㎡ 건물 827,74㎡ 매매 85억 (상당후결정)
- ★ [건물] 북구 두암동 지1~상6층 건물 대지 496,20㎡ 건물 2360,35㎡ 매매 35억 (보3억5천 월2천포함)
- ★ [건물] 북구 두암동 지1~상4층 건물 대지 442,90㎡ 건물 1237,44㎡ 매매 11억 5천 (보1천5백 월1백2십만포함)
- ★ [건물] 동구 동명동 사우나상가5층건물 위치좋은 대로변접 현상업종 대지 452㎡ 1,464㎡ 매매 17억 (용5억포함)

경매 추천 물건

- ★ [근린주택] 광주 남구 서동 3층건물 대지261㎡ 건물 379,44㎡ 감정가 5억 3천3백
- ★ [주택] 광주 동구 동명동 단층건물 토지 149㎡ 건물 68,85㎡ 감정가 9천6백
- ★ [다가구] 광주 동구 산수동 3층건물 토지 275,1㎡ 건물 480,58㎡ 감정가 4억4천7백
- ★ [다가구] 광주서구 화정동 4층건물 토지310,4㎡ 건물 518,63㎡ 감정가 7억8천5백 ▶ 최저가 5억5천
- ★ [오피스텔] 광주 동구 동명동 대지 11,26㎡ 건물 23,68㎡ 감정가 2천8백3십만 ▶ 최저가 2천
- ★ [공장] 광주 북구 양산동 식품공장, 창고용도 대지 3653㎡ 건물 3971,63㎡ 감정가 39억2천2백만 ▶ 최저가 27억4천5백
- ★ [농가시설] 나주시 문평면 옥당리 (문평산단인근) 대지 4683㎡ 건물 1599,8㎡ 감정가 3억2천1백만 ▶ 최저가 2억2천5백
- ★ [장례관련시설] 장성군 삼서면 대곡리 대지5153㎡ 건물 1798,58㎡ 감정가 17억8천8백만 ▶ 최저가 10억2백

공인중개사 김은희 062-714-2254